

미혼 여성 대상 한국판 출산태도 척도(K-AFCS)의 타당화 연구*

Received: April 15, 2025
Revised: May 23, 2025
Accepted: May 24, 2025

교신저자: 양수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sujinyang@ewha.ac.kr

* 이 논문은 주혜민의 2025년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주혜민¹, 양수진²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¹,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²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ttitudes Toward Fertility and Childbearing Scale(K-AFCS) for Unmarried Women

Hyemin Joo¹, Sujin Yang²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M.A.¹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²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태도 척도(AFCS)를 번안하고 타당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패널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집된 미혼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한국판 출산태도 척도(K-AFCS)는 '미래를 위한 출산, 현재의 방해물로서의 출산, 여성 정체성으로서의 출산'의 3요인으로 구성된 21개의 문항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거관련 타당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증분타당도 및 법칙적 망조직 분석을 통한 구인타당도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의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미혼 여성의 출산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를 제시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출산태도, 저출산, 미혼 여성, 척도타당화



© Copyright 2025,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현상에 직면해 있다.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전망되며(통계청, 2024), 이는 OECD 주요국의 평균 출산율인 1.6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격적인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연평균 3.1%씩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국회예산정책처, 2023),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 한국의 총인구는 4,57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24). 더욱 우려되는 점은 2021년부터 한국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3년 연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통계청, 2023). 이처럼 가속화되는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리적 원인과 이를 면밀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크게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 변화라는 세 가지가 있으며,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의 저출산 대응 및 정책은 주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개인의 심리적 태도와 가치관 변화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러한 접근의 한계는 정부가 2018년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에서도 인정되었는데, 해당 보고서에는 “출산을 생산력 혹은 노동력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선호와 선택에 따른 사회적 결과로 간주”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였다(신윤정 외, 2020). 이는 출산 결정에 있어 개인의 심리적 태도와 가치관이 중요한 결정 요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특히 가임기 여성의 출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분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출산태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의 부재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론적으로 출산 관련 연구는 가임기 여성으로 해야 하지만(이명진, 2022), 기존 국내 연구들은 주로 기혼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박수미, 2008; 정혜은, 진미정, 2008; 정성호, 2012; 우해봉, 장인수, 2019). 이러한 연구 경향은 출산이 주로 결혼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것이지만, 기혼 여성의 출산율은 91.6%, 기대자녀 수는 1.68명으로, 기혼 여성 대다수가 최소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할 의향이 있음이 보고되었다(통계청, 2021). 반면, 만 19~34세 사이의 여성 청년층의 미혼율은 76.8%에 달하지만(통계청, 2021), 정작 저출산 현상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인 ‘결혼과 출산 진입 이전 단계’에 있는 미혼 여성들의 심리적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이미 출산 가능성이 높은 기혼 집단을 초점에 맞춘 기존의 선행연구는 출산 진입 여부를 고민하는 미혼 여성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과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의 정책 수립을 어렵게 한다. 이처럼 가임기 여성의 대다수가 미혼이라는 점과 결혼 이전 단계에 있는 미혼 여성의 출산태도가 향후 결혼과 출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미혼 여성의 출산태도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타당화하여 저출산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심리학적 연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연구가 주로 기혼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됨에 따라, 선행연구들은 주로 출산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출산의향이라는 개념으로 측정해 왔다. 일례로, 국내에서는 출산의향을 향후 출산 가

능성의 계획으로 정의하거나(이정원, 2007), 현재 자녀 수와 출산계획에 따른 자녀 수의 합으로 측정하거나(이보라, 2018),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에 대한 희망 정도를 단일 문항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이명진, 2022).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측정 대상이 기혼 여성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된 측정 방식이 부재한 상황이다. 더불어 출산태도를 측정한 기존 연구에서도 질적 연구를 통해 문항을 구성한 후 체계적인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김경선, 오진환, 2007), 복합적인 출산태도 요인을 단일 문항으로 단순화하여 측정하는 등의 방법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노원, 문상호, 2010). 이처럼 출산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기혼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측정도구의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을 위해서는 가임기 미혼 여성의 출산태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타당화된 도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미혼 여성(만 25~35세)을 대상으로 출산 태도 척도를 타당화함으로써, 저출산 연구의 방법론적 기반을 확장하고 미혼 여성의 출산 관련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Söderberg와 동료들(2013)이 개발한 출산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Fertility and Childbearing Scale, AFC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FCS는 출산력을 예측하는 데 있어 전통적인 인구 통계 및 소득 지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개발되었으며, 기존에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Söderberg et al., 2013). 원 척도의 개발자는

출산태도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연구를 통하여 출산태도 척도의 문항을 구성하였으며(Söderberg et al., 2011), 출산에 대한 여성의 태도를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하위요인인 '미래를 위한 중요성(Importance for Future)'은 자녀 출산이 미래 삶에 만족감과 행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기대를 반영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측정한다. 두 번째 하위요인인 '현재의 장애물(Hindrances at Present)'은 출산이 현재 삶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태도를 측정한다. 이 요인은 출산이 개인의 경력, 자아실현, 혹은 현재의 삶의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의 자유와 여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마지막 하위요인인 '여성 정체성(Female Identity)'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여성의 정체성의 일부로 인식하는 태도를 측정한다.

이처럼 AFCS는 출산에 대한 다차원적인 심리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기존 척도가 주로 단일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한계점을 넘어 출산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기대, 현실적 제약 인식 등 출산 태도에 내재된 복합적인 심리적 변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국외 연구에서는 AFCS를 활용하여 여성의 출산 태도가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사회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Acer 등(2023)은 미산부(nullipara) 여성 21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 직업 상태, 가족 구조 등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AFCS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Dundar와 Elverdi(2023)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기혼 여성의 출산 의향이 경제적 요인, 경력 계획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AFCS의 하위 요인을 통해 설명하였다. 또한 Afshari와 Beheshtinasab(2022)가 이란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AFCS를 통하여 직업 유무, 임신 여부, 감염병 경험 여부가 출산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남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AFCS는 출산 태도와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환경적, 심리적 요인 간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 실증적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한국판 출산태도 척도 타당화를 위한 준거변수의 설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였다. 첫째, 혼외 출생이 흔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결혼에 대한 태도가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혼 기피 현상과 미혼율의 증가는 저출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이정하, 박정운, 윤나나, 2017). 둘째, 원가족의 부모-자녀 애착 경험이 개인의 결혼에 대한 인식(Oh, 2006) 및 결혼 결정과 자녀 출산 여부와 같은 출산 태도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삼식, 2006). 셋째, 가족 내 양육과 돌봄 노동 영역에서의 성차별 인식을 고려하였다. 한국과 원칙도가 개발된 스웨덴 간에는 양육과 돌봄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뚜렷하다. 스웨덴은 양성평등 정책이 잘 발달된 국가로, 스웨덴 남성의 하루 평균 177분을 육아와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반면, 한국 남성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45분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양정선, 2017). 이러한 불균형은 한국 여성에게 가사와 양육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현실을 반영하며 이는 여성의 출산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홍찬숙, 2013).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판 출산태도 척도(Korean version of Attitudes toward Fertility and Childbearing Scale for

unmarried women: K-AFCS)의 변안 및 타당화를 목적으로 한다. AFCS는 스웨덴, 폴란드, 터키 및 일본 등의 국외에서 타당화 및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활용하거나 타당화하는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 출산 관련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미혼 여성의 출산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25~35세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 당시, 출산경험 또는 결혼경험(이혼, 사별 등)이 있는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패널 조사 전문기관이 불성실한 응답 및 이상치를 제거 후 최종 표집한 500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한 설명을 숙지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하였다. 설문 응답에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적립금이 보상으로 제공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도구

한국판 출산태도 척도(K-AFCS)

Söderberg와 동료들(2015)이 출산 경험이 없는 스웨덴 여성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AFCS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500)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25~28세	166	33.2	거주지	서울	160	32.0
	29~32세	167	33.4		경기	121	24.2
	33~35세	167	33.4		인천	30	6.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9	9.8		강원	13	2.6
	전문대 졸업	78	15.6		충청	40	8.0
	대학교 졸업	351	70.2		전라	31	6.2
	대학원 졸업 이상	22	4.4	주관적 경제 수준	경상	99	19.8
직업	무직	64	12.8		제주	6	1.2
	학생	19	3.8		하	39	7.8
	회사원	322	64.4		중하	191	38.2
	공무원/교사	21	4.2		중	226	45.2
	자영업	14	2.8		중상	40	8.0
	전문직	29	5.8		상	4	0.8
	계약직/일용직 근로자	15	3.0	종교 유무	종교 있음	147	29.4
	기타	7	1.4		종교 없음	353	70.6
	연구/개발	5	1.0	교제경험	있음	438	87.6
	CS(고객지원서비스)	4	0.8		없음	62	12.4

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요인은 (1) 미래에 중요한 출산, (2) 현재를 방해하는 출산, (3) 여성 정체성으로서의 출산으로 구분된다.

원 척도인 AFCS에 대하여 원저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영어영문학부를 졸업한 심리학과 석사 과정생이 번역 작업을 진행한 후 심리학 전공 박사 과정생이 해당 번역본을 검토하였다. 완성된 번역본은 학부에서 국제학부를 전공하고 8년 이상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이중언어 구사자가 역번역 하였으며, 완성된 문항은 심리학 석사 과정생 이상 6인이 일치도 평정을 10점 Likert 척도(1= '전혀 같지 않다' ~ 10 = '매우 똑같다')로 실시하였다.

평정 점수의 평균은 7.16~10 범위에 있었으며, 전체 평균은 9.43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출산태도 총점 산출 시 '현재를 방해하는 출산' 하위요인은 역채점 처리되었다. 출산을 현재의 장애물로 인식하지 않는 태도가 반드시 긍정적인 출산태도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한국 사회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인식이 출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영하였다(강미선 외, 2020). 따라서 총점이 높을수록 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원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각각 .945, .916, .86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57, .893, .929로 확인되었다.

출산의향

출산의향은 신윤정 외(2020)가 실시한 '출산의향 실현 분석과 출산을 예측에 관한 설문조사'의 출산 의향 문항을 사용하였다. "귀하께서는 자녀 낳는 것을 어느 정도 원하고 계십니까?"의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점 Likert 척도(0 = '전혀 원하지 않음' ~ 11 = '상당히 원함')로 측정한다.

결혼태도

결혼에 대한 태도는 통계청(2022)이 실시한 사회 조사(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 환경)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단일 문항을 5점 Likert 척도(1 = '하지 말아야 한다' ~ 5 = '반드시 해야 한다')로 평정하였다.

출산동기

출산동기는 Miller(1995)가 개발하고 신윤정 외(2020)가 번안 및 재구성한 출산동기 척도 (Childbearing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긍정적 출산동기 28문항(예: "자녀를 낳아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준다")과 부정적 출산동기 21문항(예: "임신으로 인한 입덧, 체중 증가 등의 고통이 자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동기를 준다")으로 구성되며, 4점 Likert 척도(1 = '전혀 아니다' ~ 4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된다. 신윤정 외(2020)의 연구에서 긍정적 및 부정적 출산동기의 내적 일치도는 각각 .944, .915였고, 본 연구에서는 .970, .947로

나타났다.

긍정적 부모-자녀 애착

부모-자녀 간 애착은 Parker, Tupling, Brown (1979)이 개발하고 한기백(2013)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부모애착 척도의 하위척도인 PBI-C (Parental Bonding Instrument - Care)를 통해 측정하였다. 총 12문항(예: "나의 문제와 걱정을 이해하려 했다")으로 구성되었으며, 만 16세 이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경험을 4점 Likert 척도(1 = '아주 그랬다' ~ 4 = '전혀 그렇지 않았다')로 평정하였다. 부정 문항(예: "나에게 쌀쌀하게 대한 편이었다")은 역채점 처리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긍정적 애착 경험을 의미한다. 한기백(2013)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돌봄 요인의 *Cronbach's α* 가 각각 .92,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 통합하여 긍정 애착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80이었다.

성차별 인식

성차별 인식은 김은하(2018)가 개발한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Scale, EGM)를 통해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두 가지 하위요인-'성차별 부정 및 성역할 고정관념'(9문항, 예: "남자로부터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제대로 자란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과 '여성의 미모 강조'(5문항)-로 구성되며, 총 14문항을 포함한다. 5점 Likert 척도(1 = '전혀 경험한 적 없다' ~ 5 = '매우 자주 경험했다')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 속 성차별을 자주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은하(2018)의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가 .93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4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척도 문항의 양호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5.0을 활용하여 문항 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검토하였다. 이후 문항 양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총점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내적합치도(Cronbach's α) 지수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Mplus 7.0을 통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AFCS는 원척도 개발자에 의하여 타당화되었으며(Söderberg et al., 2013), 다양한 국가에서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에 유용한 도구로 입증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Kossakowska & Söderberg, 2021; Göral et al., 2021; Miyata et al., 2017; Zarei Salehabadi et al., 2020; Afshari & Beheshtinasab, 2022; Dundar & Elverdi, 2023; Acer et al., 2023). 요인구조가 명확한 척도의 경우,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선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Byrne, 2010), 탐색적 요인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나아가, 준거타당도(criterion validity)를 확인하고자 선행연구를 통해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진 변인인 출산의향, 출산동기, 결혼의향, 긍정적 부모-자녀 애착, 일상 속 성차별 경험과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증분 타당도(incremental validity)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 한 출산태도 척도가 선행연구에서 출산의향에 영향을 준다고 확인된 출

산동기 척도와 비교하여 증가된 설명력을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칙적 망조직(Nomological network) 분석을 실시하여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법칙적 망조직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구자가 개발하고자 한 척도의 구인과 관련성이 입증된 요인들 간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Cronbach & Meehl, 1955). 본 연구에서는 출산태도를 예측하는 변수로 부모-자녀 관계를, 출산태도의 결과 변수로 출산의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변수 간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설정된 법칙적 망조직 모형을 구조방정식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문항분석

문항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평균은 1.67~2.60, 표준편차는 0.763~1.310의 범위에 속하였다. 또한 왜도와 첨도 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왜도는 .169~1.459, 첨도는 -1.226~2.366의 범위에 속하였다. 따라서 모든 척도 문항은 다변량 정상성을 확보하였다. 문항-총점간 상관계수는 .638~.929에 분포하고 있어, 문항의 내적일관성이 만족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CFA)

K-AFCS의 요인 구조가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척도 문항의 다변량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추정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검정은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아 영가설이 쉽게 기각되기에, CFI, TLI, SRMR, RMSEA 지수를 종합하여 확인하였다. SRMR=.0061로 높은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CFI=.890, TLI=.876, RMSEA=.105으로 나타나, 다소 낮은 적합도 수치를 보였다. 이에 수

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를 참고하여 모형의 어느 부분이 낮은 적합도의 원인이 되는지 탐색하였다. 수정지수는 구조방정식모형에서 특정 고정 모수를 자유 모수로 변경할 경우 기대되는 χ^2 값의 잠재적 감소를 나타내는 통계적 지표이다(강현철, 2013).

표 2. 척도 문항 및 수정지수 연결 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 = 500)

	χ^2	df	p	CFI	TLI	SRMR	RMSEA
K-AFCS	962.158	184	0.0000	.916	.904	0.092	0.066
요인							
미래의 중요성	1. 나는 언젠가 어머니가 될 것을 기대한다.						
	2. 내 자신의 임신과 출산 과정을 상상할 수 있다.						
	3. 나에게 어머니가 되는 일은 중요하다.						
	4. 미래에 임신하는 경험을 기대하고 있다.						
	5. 자녀 출산은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6. 나에게 미래에 임신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은 중요하다.						
	7. 가임 능력은 내 미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의 방해물	8. 자녀를 가지는 것은 내 여가 활동에 제한을 두게 할 것이다.						
	9. 출산은 현재 내 삶에 적합하지 않다.						
	10. 지금은 어머니의 책임을 맡고 싶지 않다.						
	11. 계획되지 않은 임신은 내 현재의 삶에 방해가 될 것이다.						
	12. 자녀를 가지는 것은 친구들과의 사회적 교류를 제한할 것이다.						
	13. 어머니가 되는 일은 내 개인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을 것 같다.						
	14. 자녀를 가지는 것은 학업 기회를 제한할 것이다.						
여성정체성	15. 자녀를 가지기 전에 자유를 최대한 누리고 싶다.						
	16. 자녀를 가지는 것은 내 경력 개발을 제한할 것이다.						
	17. 임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성성을 느끼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18. 내 가임 능력은 다른 여성들과의 유대감을 느끼게 해준다.						
	19. 어머니가 되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에 중요하다.						
	20. 임신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21. 언제든지 임신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수정지수 확인 결과, 1요인인 출산의 미래적 중요성을 측정한 6번 문항(“나에게 미래에 임신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은 중요하다”)과 7번 문항(“가임 능력은 내 미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2요인인 출산을 현재의 방해물로 간주하는 태도를 측정하는 9번 문항(“출산은 현재 내 삶에 적합하지 않다”)과 10번 문항(“지금은 어머니의 책임을 맡고 싶지 않다”)은 각각 오차항간 공분산의 수정지수가 154.677, 84.038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가 “미래에 임신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과 “가임 능력”을 비슷한 의미로 판단하였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두 측정변수들의 고유분산이 유사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 이에 선행연구가 제안한 바에 따라(Jöreskog & Sörbom, 1993), 각 문항들의 공분산을 연결하고 재분석한 결과 CFI 값이 .916로, TLI 값이 .904로 상승하였으며, SRMR 또한 .092로 개선되었다. 이에 오차항 간의 공분산을 연결한 후 재분석된 21개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확인한 결과, 21 문항 모두 .562~.933 사이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p < .001$ 수준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모든 문항이 척도의 개념을 대표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K-AFCS의 척도문항과 수정지수를 연결한 후의 모형적합도 값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준거타당도

준거관련 척도와의 상관계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K-AFCS는 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의미하는 미래에 대한 중요성과 여성정체성 요인은 출산의향, 결혼태도, 긍정적 출산동기, 긍정적 부모-자녀 애착과 정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출산동기, 성차별 인식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출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는 현재의 방해물 요인에서는 출산의향, 결혼태도, 긍정적 출산동기, 긍정적 부모-자녀 애착과 모두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부정적 출산동기, 성차별 인식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표 3. 준거변수간 상관관계

(N = 500)

	1	2	3	4	5	6	7	8	9
1. 출산태도	1								
2. 출산태도-미래	.935**	1							
3. 출산태도-방해	-.776**	-.625**	1						
4. 출산태도 - 정체성	.899**	.778**	-.522**	1					
5. 출산의향	.868**	.896**	-.624**	.727**	1				
6. 결혼태도	.639**	.661**	-.438**	.549**	.647**	1			
7. 긍정적 출산동기	.793**	.735**	-.576**	.748**	.684**	.520**	1		
8. 부정적 출산동기	-.544**	-.496**	.617**	-.364**	-.489**	-.375**	-.454**	1	
9. 부모자녀애착	.203**	.231**	-.129**	.160**	.223**	.191**	.196**	-.171**	1
10. 성차별인식	-.343**	-.268**	.408**	-.263**	-.280**	-.191**	-.326**	.406**	-.026

** $p < .01$

K-AFCS는 선행연구에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외적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준거관련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증분타당도: 위계적 회귀분석

출산태도가 출산의향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출산동기가 설명하는 변량을 통제하고도 유의한 증분 설명량을 가지는지를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1단계에서 출산의향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연령, 직업, 학업, 경제수준, 종교 여부, 교제 여부)을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 출산동기를 투입하였으며 마지막 3단계에서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출산태도 척도(K-AFCS)를 투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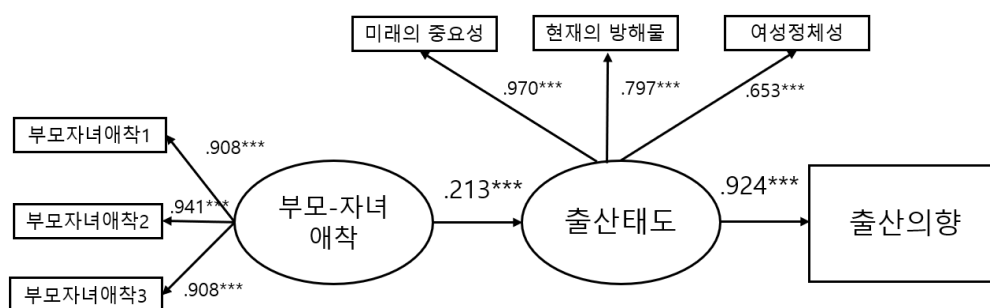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표 4 참조), 모든 단계의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단계별로 증가하여 3단계에서 75.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또한 투입한 변수들의 공차한계는 모두 .100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K-AFCS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출산동기가 설명하는 변량을 통제하고도 출산의향에 대해 유의한 추가 설명량을 가져, 증분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구인타당도: 법칙적 망조직

법칙적 망조직은 특정 척도의 개념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해당 구인과 관련된 선행 요인과 결과 변수 간의 논리적 관계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구인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출산태도의 선행 요인으로 긍정적 부모-자녀 애착을 설정하여, 긍정적 부모-자녀 애착이 출산태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출산태도의 결과 요인으로 출산의향을 설정하고, K-AFCS가 출산의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측정모형 검정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척도인 부모-자녀 애착은 요인 알고리즘을 통해 3개의 지표변수를 지닌 것으로 설정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χ^2 값은 30.812($df=13$, $N=500$)로 유의수준 .001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χ^2 검정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여 과도하게 영가설을 기각하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CFI가 .994, TLI는 .990, SRMR값이 .023, RMSEA는 0.052로 모두 좋은 적합도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측정 모형은



주. *** $p < .001$.

그림 1. 출산태도 척도의 법칙적 망조직 구조모형

표 4.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 = 500)

단계모형	독립변수	B	SE	β	R^2	ΔR^2
1단계	연령	-.073	.045	-.075	.050	.050***
	학력	-.222	.205	.050		
	직업	.008	.084	.004		
	경제수준	.277	.182	.070		
	종교유무	-.486	.121	-.178***		
	교제경험	.811	.425	.086		
2단계	연령	-.038	.033	-.039	.486	.436***
	학력	.071	.152	-.016		
	직업	-.011	0.62	-.006		
	경제수준	-.031	.135	-.008		
	종교유무	-.130	.090	-.048		
	교제경험	.537	.313	.057		
	출산동기	3.935	.193	.682***		
3단계	연령	-.026	0.23	-.027	.756	.270***
	학력	.144	.105	.033		
	직업	-.027	.043	-.015		
	경제수준	-.015	.093	.004		
	종교유무	-.062	.062	-.023		
	교제경험	.013	.217	.001		
	출산동기	.072	.212	.012		
	K-AFCS	3.168	.136	.856***		

*** $p < .001$

구조모형 검정을 위한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구조모형 검정

구조모형 검정 결과, 긍정적 부모-자녀 애착에서 출산태도의 표준화 경로추정치는 .213($p < .001$), 출산태도에서 출산의향의 표준화 경로추정치는 .924($p < .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

서 긍정적 부모-자녀 애착은 출산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출산태도는 출산의향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선행요인인 긍정적 부모-자녀 애착은 출산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고, 출산태도가 출산의향을 유의하게 예측함으로써 본 연구의 구인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Söderberg와 동료들(2013)이 개발한 출산태도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 미혼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판 출산태도 척도 문항의 번안 및 문항 양호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준거타당도, 증분타당도, 구인타당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문항 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값이 적절한 범위 내에 분포하였으며, 하위요인별 문항 간 상관 및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와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가 문항 양호도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척도 문항들이 출산태도 구인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해외에서 개발된 출산태도 척도를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하고 타당화함으로써, 한국 미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로운 도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출산을 회복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시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반대한다는 가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존 접근 방식의 한계를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미혼 여성의 출산 태도에 주목하고, 개인의 심리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척도 타당화 과정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K-AFCS를 엄밀하게 검증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특히 준거타당도와 증분타당도 검증에 더해, 법칙적 망조직(nomological network) 분석을 통한 구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출산태도라는 구인의 이론적 관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다. 법칙적 망조직 분석은 단순한 변수 간 상관관계를 넘어 이론적으로 연관된 선행요인(부모-자녀 애착)과 결과요인(출산의향) 간의 인과관계 구조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척도의 구성개념이 실제 이론적 맥락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다면적 타당화 접근은 K-AFCS가 단순히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높은 척도를 넘어, 이론적으로 예측 가능한 관계성을 실증적으로 반영하는 타당한 측정도구임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애착 경험 및 애착특성이 출산태도와 개인의 생식 전략(reproductive strategy)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Del Giudice M., 2009).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애착 경험은 자기 개념과 대인관계 양식, 가치관 형성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심리사회적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며(Bowlby, 1988; Sroufe, 2005), 출산태도 또한 이러한 장기적 발달 과정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출산태도를 단순한 개별적 의사결정이 아닌 부모-자녀 애착 경험과 발달적 연속성 상에서 개인의 출산 의향에 통합하여 살펴봄으로써 출산 행동의 심리적 기제를 보다 포괄적이고 발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척도의 이론적 기여가 있다. 이러한 발달심리학적 이해는 저출산 정책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책 중심의 단기적 접근보다 가족 내 건강한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장기적 접근을 포함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이는 세대 간 애착 경험의 차이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를 전제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애착 경험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 조건의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출산 대책 수립 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긍정적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위한 심리·사회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출산태도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함으로써, 저출산 연구의 방법론적 확장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국내 척도들은 출산 및 자녀 희망 정도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거나(김경선, 오진환, 2007; 노원, 문상호, 2010), 출산의향과 출산태도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이보라, 2018). 그러나, 출산태도와 같은 복잡한 심리적 구인은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된 K-AFCS는 ‘미래를 위한 출산’, ‘현재의 방해물로서의 출산’, ‘여성 정체성으로서의 출산’이라는 세 가지 하위요인을 통해 출산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태도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한국 미혼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태도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다차원적 접근은 인구통계학적 접근이나 경제적 접근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출산에 대한 심리적 차원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본 척도는 연령, 직업, 경제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출산동기를 통제한 이후에도 출산의향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K-AFCS가 심리적 구성개념으로서의 타당성을 지님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경제·문화적 맥락에서 개인

의 출산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심리·사회적 요인을 반영하여, K-AFCS의 하위 요인 구조를 문화적으로 확장하는 연구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타당화된 K-AFCS는 향후 심리학적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실증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미혼 여성만을 대상으로 척도 타당화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혼외 출산이 매우 드문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신윤정 외, 2020; 이명진, 2022), 실제 출산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기혼 여성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최근 국내 무자녀 부부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권익성, 2024), 기혼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K-AFCS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고,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 간 출산태도의 구조적 차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두 집단 간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배경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설문 문항도 집단 및 결혼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집단 분석을 통한 형태 및 측정 불변성 검정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에 따른 출산태도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저출산 대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스웨덴에서 개발된 원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했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 출산에 대한 태도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적

및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 구조와 의미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원척도가 개발된 스웨덴은 성평등 지수가 세계 최상위권이며, 출산 및 육아 관련 사회복지 제도가 발달되어 있어 여성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경험하는 사회적 압력과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한국은 전통적으로 가족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출산과 양육이 여전히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부과되는 사회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스웨덴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때, 원척도의 요인구조가 한국 여성의 출산태도를 완벽하게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된 문항 개발 및 수정을 통하여, 문화적 타당성이 반영된 출산태도 척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심층적 인터뷰와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한국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문항 수정 및 재구성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단일 표본을 사용한 단회성 자료 수집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반분 검사 신뢰도(split-half cross-validation) 검증이나 다집단 분석 등을 통해 구조의 신뢰도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미혼 여성의 출산태도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K-AFCS를 제시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척도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접근을 넘어 개인의 심리적 태도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서, 향후 한국 사회의 저출산 대책 마련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강미선, 김성희, 정인혜 (2020). 내 뜻대로 삶 쓰기: 20대 여성의 4B 가치관 형성 과정 연구. **여성학논집**, 37(1), 153-194.
- 강현철 (2013).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적합도지수의 해석과 모형적합 전략에 대한 논의.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2), 653-668.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 권익성 (2024). 지난 10년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 **KLI 패널브리프**, 29, 1-13.
- 김경선, 오진환 (2007). 여대생의 자녀출산에 대한 태도 연구 - Q방법. **주관성 연구**, (15), 149-161.
- 김은하 (2018).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4), 593-614.
- 노 원, 문상호 (2010). 출산장려 정책신뢰도가 출산태도에 미치는 영향: 가임연령(25-45) 여성 표본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 257-281.
- 박수미 (2008).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 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59-77.
- 신윤정, 이명진, 전광희, 문승현 (2020). **출산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정선 (2017, 09). 외국정책사례 한국의 저출산 특수성과 스웨덴의 가족 정책. **월간 공공정책**, 143, 70-73.
- 우해봉, 장인수 (2019). 출산 계획과 출산 행위 간 연관성 분석과 시사점. **사회복지정책**, 46(2), 85-115.
- 이명진 (2022).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TDIB 모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2), 141-166.
- 이보라 (2018). **정부정책신뢰와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 이정원 (2007).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정하, 박정운, 윤나나 (2017). 비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 탐색을 위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2), 183-214.
- 정성호 (201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5(1), 31-52.
- 정혜은, 진미정 (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31(1), 151-168.
- 통계청 (2024). **"2024년 1월 인구동향"**, 통계청 인구동향과.
- 통계청 (2023). **"장래인구추계: 2022~2072"**, 통계청 인구동향과.
- 통계청 (2022). **"2022년 사회조사: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사회통계기획과.
- 통계청 (2021).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인구동향과.
- 한기백 (2013).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애착과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성인애착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4(5), 3065-3087.
- 홍찬숙 (2013). 1980~90년대 한국의 저출산 현상: 젠더 불평등 및 그 문화적 의미. **한국여성학**, 29(3), 1-40.
- Acer, M. H., Özbek, H., & Çakır, D. (2023). Investigation of Nulliparous Women's Attitudes Toward Fertility and Childbearing. *Cumhuriyet Medical Journal*, 45(3), 125-134.
<https://doi.org/10.7197/cmj.1345351>
- Afshari, P., Abedi, P., & Beheshtinasab, M. (2022). Fertility decision of Iranian wom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home quarantine: A cross-sectional study in Iran. *Frontiers in psychology*, 13, 993122.
<https://doi.org/10.3389/fpsyg.2022.993122>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Basic Books.
- Cronbach, L. J., & Meehl, P. E. (1955). Construct validity in psychological tests. *Psychological Bulletin*, 52(4), 281-302.
<https://doi.org/10.1037/h0040957>
- Del Giudice M. (2009). Sex, attachment, and the development of reproductive strategies. *Th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2(1), 1-67.
<https://doi.org/10.1017/S0140525X09000016>
- Dundar, C., & Elverdi, T. K. (2023). The

-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attitude towards childbearing of married aged 20 - 30 Turkish women who are not yet mothers: a cross-sectional study. *BMC Public Health*, 23(1), 1050.
<https://doi.org/10.1186/s12889-023-15976-2>
- Göral, S., Özkan, S., Sercekus, P., & Alataş, E. (2021).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Turkish Version of the Attitudes to Fertility and Childbearing Scale (AFCS). *International Journal of Assessment Tools in Education*, 8(4), 764-774.
<https://doi.org/10.21449/ijate.773132>
- Jöreskog, K. G., & Sörbom, D. (1993). *LISREL 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SIMPLIS command language*.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Kossakowska, K., Söderberg, M. (2021). Psychometric properties and factor structure of the attitudes to fertility and childbearing scale(AFCS) in a sample of polish women. *Curr Psychol* 40, 3125-3135.
<https://doi.org/10.1007/s12144-020-01004-8>
- Miller, W. B. (1995). Childbearing motivation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27(4), 473-487.
<https://doi.org/10.1017/s0021932000023087>
- Miyata, M., Matsukawa, T., Suzuki, Y., Yokoyama, K., & Takeda, S. (2017). Psychometric Properties of Japanese Version of the Attitudes towards Fertility and Childbearing Scale (AFCS). *Journal of Advances in Medicine and Medical Research*, 19(7), 1-12.
<https://doi.org/10.9734/BJMMR/2017/30723>
- Oh, S. H. (200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s childcare policies to solve low birthrate and child bir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Korea.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1), 1-10.
<https://doi.org/10.1111/j.2044-8341.1979.tb02487.x>
- Sroufe L. A. (2005). Attachment and development: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adulthood.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7(4), 349-367.
<https://doi.org/10.1080/14616730500365928>
- Soderberg, M., Lundgren, I., Olsson, P., & Christensson, K. (2011). A burden and a blessing-young Swedish women's experience of fertility. A study among women lacking experience of pregnancy and parenthood.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32(5), 402-419.
<https://doi.org/10.1080/07399332.2010.53>

0725

Söderberg, M., Lundgren, I., Christensson, K., & Hildingsson, I. (2013). Attitudes toward fertility and childbearing scale: an assessment of a new instrument for women who are not yet mothers in Sweden. *BMC pregnancy and childbirth*, 13, 197.
<https://doi.org/10.1186/1471-2393-13-197>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ttitudes Toward Fertility and Childbearing Scale(K-AFCS) for Unmarried Women

Hyemin Joo¹

Sujin Yang²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M.A.¹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²

This study aimed to translate and validate the Attitudes toward Fertility and Childbearing Scale (AFCS) for unmarried women in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500 unmarried women recruited online through a research panel.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a three-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cale (K-AFCS), comprising 21 items across the dimensions of “Importance for the Future,” “Hindrance at Present,” and “Female Identity.” Furthermore, the scale demonstrated satisfactory validity across multiple domains, including criterion-related validity, incremental validity vi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through nomological network analysi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 for measuring childbearing attitudes among unmarried women—a group relatively underrepresented in existing research—thus laying the groundwork for more comprehensive and in-depth investigations into the multifaceted issue of low fertility in Korea.

Key words : Attitudes toward fertility, low fertility, unmarried women, validation